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뷰어에 관한 연구*

- WOS Researcher Profile을 기반으로 -

A Study on Reviewers of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cused on WOS Researcher Profile

조재인 (Jane Cho)**

초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Library & Information Science: LIS) 분야 국제 학술지 리뷰어의 학술성과, 리뷰 및 편집 실적 등을 조사하고, 그중 어떠한 요인이 그들이 리뷰하는 학술지의 영향력에 관련성을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WOS Researcher Profile, InCite를 기반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리뷰어 307명을 추출하고 그들이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를 수집하여 비모수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LIS 국제 학술지 리뷰어의 국적은 미국, 스페인, 영국 순으로 나타나며, 극상위 학술성과와 리뷰 실적을 나타내는 소수의 연구자가 존재해, 전반적으로 롱테일 그래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그들의 논문량과 같은 학술성과는 리뷰, 편집과 같은 학술지 발간 참여와는 약한 관련성($r = 0.38$ $p < 0.01$)만을 보여 양자가 다소 독립적인 활동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분석 대상 연구자가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은 그들이 발표한 논문의 양보다는 피인용 횟수와 h-Index와 같은 영향력 지표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그리고 우수 학술지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리뷰어의 h-Index만이 1.15의 승산비(Odds Ratio)로 정(+)의 영향(95% CI: 1.094-1.209)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gional distribution, academic achievements, review and editorial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journal reviewer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what factors were related to the impact of the journals they reviewed. This study extracted 307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reviewers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WOS researcher profile and inCite. In addition, impact metrics of the journals reviewed by these reviewers were collected and nonparametric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irst, LIS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reviewers are distributed in the order of the US, Spain, and the UK,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are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who demonstrate top-notch academic achievements and review performance, forming an overall long-tail graph. Secon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LIS international journal reviewers was found to have a weak correlation ($r = 0.38$ $p < 0.01$) with their participation in journal publications, such as reviewing and editing. So the two were interpreted as somewhat independent activities. Third, the influence of the journals reviewed by the researchers under analysis was more closely related to impact index such as the number of citations and h-Index than to the amount of papers they published.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only the H index was 1.15, indicating a positive effect (95% CI: 1.094-1.209).

키워드: 리뷰어, 국제 학술지, 문헌정보학, h-Index, 피인용, 학술논문, 영향력

Reviewer, International Journal,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h-Index, Citation, Academic Paper, Impact Metrics

* 본 논문은 2024년도 인천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hojane@inu.ac.kr)

논문접수일자 : 2025년 2월 10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2월 2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1): 67-85,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1.067>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동료심사(peer review)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을 선별하고 내용을 검증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리뷰어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심사 과정에서 건설적 의견을 제공하며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학술적 결과를 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방형 디지털 학술 환경에서 동료심사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구 결과 중 무엇이 가치 있는 과학적 발견인지를 선별하여 전문성과 시간이 부족한 일반 연구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투고되는 논문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잠재적 리뷰어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리뷰어를 섭외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학술지 편집자의 대부분이 의지 있고 유능한 리뷰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Publons, 2018), 불충분한 리뷰어 풀, 지역간 부적절한 분포 등으로(Lei, 2022) 거절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Breuning et al., 2015). 편집자는 투고 논문 심사에 적합한 리뷰어를 선정하기 위하여(Seeber, 2020), 연구자의 출판 기록, 피인용 기록, 추천 도구 등을 활용하지만, 보상이 없는 리뷰 활동을 기꺼이 수락하는 리뷰어를 섭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심사 대상 논문이 자신의 연구 관심사와 일치하는 경우에 리뷰 요청을 수락한다(Seeber, 2020). 그러나 학계에서의 평판 구축, 경력 발전,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할인과 같은 재정적 보상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으며(Ohly & Schneiderberg, 2021),

편집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학술 커뮤니티에 진입하기 위하여 리뷰 요청을 수락할 수도 있다(Warne, 2016). 또한 명망있는 연구자는 영향력이 큰 학술지의 논문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나, 리뷰를 배움의 기회로 인식하는 신진연구자들은 낮은 등급의 학술지도 리뷰할 수 있으며(Lei, 2022), 리뷰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다는 보고도 있다(IOP Publishing, 2020; Pomponi et al., 2019; Rodríguez-Bravo et al., 2017).

위와 같이 학문적 탐구 대상으로서 학술지 리뷰어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암맹 검토의 전통하에 더디게 진행된 리뷰 실적의 관리와 공개로 인해 기존 연구는 대부분 특정 학술지를 기반으로 한 사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리뷰 논문의 익명성은 유지되면서 리뷰어의 실적을 인증·공개하는 오픈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리뷰 실적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인 WOS Researcher Profile(구 Publons)을 활용하여 리뷰어의 특성을 계량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문헌정보학(Library & Information Science) 분야의 국제 학술지 리뷰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지역적 분포, 학술성과, 리뷰 및 편집 기록, 주로 리뷰하는 학술지를 조사하고 리뷰어의 어떠한 특성이 리뷰하는 학술지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뷰어의 학술성과와 리뷰, 편집과 같은 학술지 발간 참여 활동은 어떠한

가? 두 번째, 리뷰어의 학술성과는 그들의 국제 학술지 발간 참여 정도와 관련성을 나타내는가? 세 번째, 리뷰어의 어떠한 특성이 그들이 리뷰하는 학술지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나타내는가?

2. 문헌 고찰

본 장에서는 학술지의 수준에 따른 리뷰어의 차이, 리뷰어의 지역적 불균형, 리뷰 요청 수락 동기, 신진연구자와 중견연구자간의 리뷰 활동 차이를 다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먼저 학술지의 수준에 따른 리뷰어의 특성과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Seeber(2020)는 최상위 학술지는 저명한 학자 및 기관으로부터 투고를 유치하고 동료 검토는 경험이 풍부하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리뷰어에 의존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상위 학술지는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리뷰어에게 이론적 기여와 방법론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반면, 낮은 등급의 학술지는 경험적 기여와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강조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한편 학술지의 수준과 리뷰어의 학술적 영향력을 계량적으로 탐구한 연구도 있다. Publons에 등록된 학자들의 동료 검토 활동과 Google Scholar에 반영된 연구 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Ortega(2017)는 리뷰어의 학술적 영향력은 리뷰된 학술지의 품질($r = 0.277$)과 약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Lei(2022)도 1,000개의 의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학술지 순위와 리뷰어의 학술적 영향력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저명

한 과학자들은 더 높은 등급의 학술지를 리뷰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술지 순위는 리뷰어의 피인용 지표와 긍정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두 번째로 Gaston(2018)은 국제 학술지 리뷰어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는 아시아 출신 저자는 전체의 25.68%나 차지하지만 리뷰어로는 자주 초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다른 지역의 리뷰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리뷰 의뢰를 받고 있는 북미의 경우 저자(23.85%)보다 리뷰어(31.7%)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리뷰 요청의 급증 속에 리뷰어의 지역적 분포와 균형의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전 세계 리뷰어 1,2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수행한 IOP Publishing(2020)도 리뷰어의 지역적 불균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독일, 미국 및 영국의 리뷰어는 과도하게 많은 리뷰 요청을 받아 피로함을 표명하는 반면, 많은 논문을 생산하는 중국과 인도의 리뷰어는 이들보다 적게 과부하 의견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리뷰어는 논문에 대한 관심, 학술지의 평판, 학술 커뮤니케이션 참여 동기에 의해 요청을 수락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Tite와 Schroter(2007) 등은 생물의학 분야 학술지의 리뷰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논문 심사 수락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제 영역에 대한 논문의 기여도, 자신의 연구 영역과의 관련성,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등이며, 거절하는 원인은 다른 작업과의 충돌, 시간적 제약 등이

라고 하였다. 그들은 많은 학술지가 적시에 리뷰를 끝내서 출판을 지연시키지 않을 리뷰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서 무료 학술지 구독, 결과 및 리뷰 질에 대한 피드백, APC 할인, 편집위원 위촉 등과 같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에는 리뷰어의 동기 부여에 대하여 다른 측면의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Haak(2015)은 APC 할인 등의 인센티브보다 리뷰 실적을 리뷰어의 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체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네 번째로 Jamali et al.(2020)은 1,600명의 전 세계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진연구자들에 있어 리뷰 수락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논문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고하였다. 신진연구자들은 리뷰를 통해 얻은 학습 경험을 선호하고 이를 배움의 수단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Rodríguez-Bravo et al., 2017), 잠재적 저자로서 편집자와의 우호적 관계 구축을 위해 더 많이 동료 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리뷰의 품질에 대한 피드백 즉 리뷰가 유용했는가, 본인의 판정이 최종 출판 결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며 리뷰 실적 인증, 리뷰어 양성 교육에도 관심을 가진다(IOP Publishing, 2020). 한편 높은 영향력을 가진 연구자는 동료 검토에 덜 적극적이며, 상대적으로 연구 경력이 짧은 연구자들이 리뷰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평균 리뷰 시간도 36세 미만의 경우, 평균 9.6시간, 65세 이상의 경우 5.8시간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축된다고 추산되었다(Rodríguez-Bravo et al., 2017).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계량적 분석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리뷰 실적과 연구자의 생산성 간의 관계를 밝히거나(Cho, 2024; Ortega, 2017), 리뷰어의 성별 간 차이(Zhang et al., 2022),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s)를 검토하는 리뷰어(Severin et al., 2021) 등이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뷰어를 탐구하는 계량적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리뷰 실적의 공개와 업적으로의 인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조재인, 2022).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Clarivate의 Incite와 WOS(Web of Science) Research Profile을 통해 LIS 분야 리뷰어와 그들이 리뷰하는 학술지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인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JCR(Journal Citation Report)의 ISLS(Information Science Library Science) 카테고리에서 의학정보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LS(Library Science) 분야의 학술지 중 2021 상위 IF(Impact Factor)를 보인 3종의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ISLS 카테고리에서 LS 분야의 학술지를 선별하는 방법은 Huang et al.(2019) 및 Abrizah et al.(2015)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IS(Information Science)는 LS보다 다학제적 성격이 강하여 이 분야에 투고하거나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는 다양한 주제

분야에 퍼져 있다. 따라서 최대한 문헌정보학 분야에 집중된 리뷰어를 선별하기 위하여 IS를 배제하고 LS 분야의 학술지로 제한하여 상위 3종인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Learned Publishing, Journal of Documentation을 선택하였다.

두 번째,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Incite를 통해 이 학술지에 2012년 이후 논문을 출판한 연구자 중 Web of Science ResearcherID에 본인임이 주장된(claimed) 총 548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연구자 중 1건 이상의 리뷰 실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다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 총 307명을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 다음 Incite를 통해 그들의 WOS 논문수와 피인용 횟수, h-Index, 소속 국가를 추출하였고 WOS Researcher Profile을 통해서 그들의 리뷰 실적, 편집 기록(editorial record), 편집위원 위촉 횟수, 리뷰 시작 시점, 리뷰 보고서 길이, 리뷰 학술지명을 수집하였다. 그중 편집 기록은 리뷰어를 모집하고 심사 의견을 관리하며 출판 여부 결정에 참여한 기록을 의미하는데, WOS Researcher Profile에서는 저널과 컨퍼런스 제출 논문에 대한 편집 기록을 제휴 저널 측 확인 하에 관리하고 있다. 편집 기록은 심사 논문별로 추가되므로 같은 논문에 대한 수정 라운드에 대한 기록은 중복 등록되지 않는다. 또한 편집위원 위촉 횟수 역시 제휴 저널이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편집위원 위촉 내용은 제거되고 있다.

세 번째, WOS Researcher Profile에는 연구자가 리뷰한 학술지 리스트와 해당 학술지에서 리뷰한 논문의 숫자가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리뷰어가 가장 다수의 논문

을 리뷰한 학술지를 5종까지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학술지 리스트는 총 1,003종이었고 여기에서 중복을 제거한 숫자는 465종으로 추려졌다. 이렇게 집계한 상위 학술지 리스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그 다음 단계로 465종에 대한 영향력 지표로서 SJR(SCImgo Journal Rank)과 CiteScore를 수집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자가 리뷰한 학술지 중에는 JCR 미등재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색인을 구축하는 Scopus 기반의 지표를 선택하였다. 그중 CiteScore는 Scopus 학술지의 피인용 지수를 바탕으로 한 영향력 지수로 3년 치 논문의 평균 피인용을 제시한 지표이다. 그리고 SJR은 1을 기준으로 학술지의 영향력을 평균 이상과 이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표이다. 이는 인문학과 같이 하나의 피인용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분야와 생명과학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가지는 분야 간의 차이가 고려되어 정규화된 지표이다.

네 번째, 북미·유럽과 아시아 및 기타 지역 국가들이 국제 학술지 리뷰와 편집 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리뷰어의 소속 국가를 분류하였다. 영어 활용 비중이 높고 선진국이 다수 포함된 북미와 유럽을 1로 코딩하고 개발도상국이 다수 포함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를 0으로 코딩하여 각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소속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윤리심의 면제 대상임을 확인한 후(2023.9), 리뷰어 정보를 수집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이렇게 수집된 리뷰어와 그들이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1〉 분석 대상 리뷰어가 주로 리뷰하는 학술지 상위 20종

순위	학술지	리뷰 횟수
1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6
2	Learned Publishing	45
3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0
4	Scientometrics	33
5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30
6	Journal of Documentation	29
7	Quantitative Science Studies	19
8	Sage Open	16
9	Online Information Review	13
10	Electronic Library	12
11	Information Development	12
12	Profesional de la Informacion	12
13	Plos One	11
14	Publications	11
15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10
16	Global Knowledge Memory and Communication	10
17	Library Hi Tech	9
18	Sustainability	9
19	BMJ Open	8
20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

첫 번째, 분석 대상 리뷰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속 국가, 연구 실적, 리뷰 및 편집 기록, 편집위원 위촉 횟수, 리뷰 보고서 평균 길이 등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리뷰어의 학술적 성과와 학술지 발간 참여 활동 간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논문량, 피인용량, h-Index를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요인점수를 획득한 후, 이를 리뷰어의 “학술성과”에 대한 변수로 활용하였다. 또한 리뷰량, 편집 기록량, 편집위원 위촉 횟수를 대상으로도 요인점수를 획득한 후, 이를 “학술지발간참여”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변수간의 관련성을 비모수 상관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요

인분석은 변수들을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Bartlett 테스트나 KMO(Kaiser-Meyer-Oklín) 테스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 축약 가능한지 확인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CiteScore, SJR과 리뷰어의 각종 지표 간 관계를 분석해 유의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변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우수 학술지 리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량적 변수가 이분형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종속변수를 우수 학술지

여부로 설정했는데, SJR 값이 평균인 1을 넘는 경우와 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바이너리로 코딩한 후, 논문량, 피인용량, 리뷰량, 편집 기록량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어떠한 변수가 우수 학술지 리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리뷰어의 특성인지 확인해 보았다.

4. 연구 결과

4.1 LIS 국제 학술지 리뷰어의 특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548명의 저자 중 리뷰 실적 데이터가 존재하는 연구자는 총 30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56개 국적을 가진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이 미국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25), 영국(21) 순으로 나타난다. 상위 국가 중 아시권에서는 중국(13)과 이란(12)이 포함된다. 한편 리뷰어의 국적 분포를 더 크

게 나누어 보면 북미와 유럽이 64.8%를 이루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가 35.2%를 이룬다.

두 번째 분석 대상 리뷰어들의 WOS 논문량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최대 954편, 평균 36편으로 나타났다. 피인용 횟수는 최대 48,379건, 평균 826건으로 나타나 그래프를 그리면 극단적 봉테일을 나타낸다. 극상위 실적을 보이는 3인의 연구자를 살펴보면, 954건의 WOS 논문이 등록된 중국의 연구자와 각각 736, 463건의 연구 실적을 나타내는 호주와 크로아티아 연구자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LS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한 경험은 있으나, 주로 연구하고 리뷰하는 분야는 공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4위인 Thelwall, Mike (영국)가 461건의 논문 실적을 가져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는 368건의 실적을 나타내는 Bornmann, Lutz(독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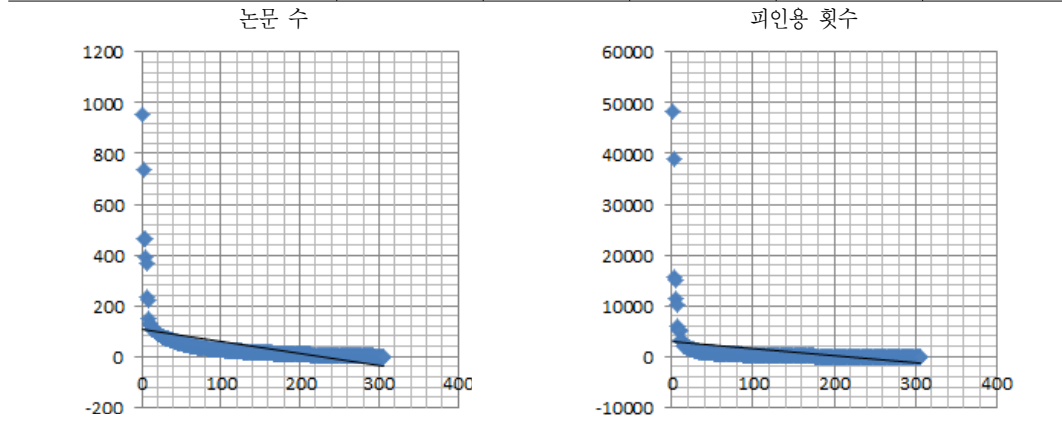
세 번째, 리뷰를 가장 많이 한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2,231건의 누적 리뷰 실적을 보이는 리투아니아 연구자로 나타났으나, 이 연구자도 역시 공학을 주 분야로 하는 것으

<표 2> 분석 대상 리뷰어의 국적

국가별 분석 대상 연구자 분포(상위 10개국)			대구분된 분석 대상 분포		
국가	연구자수	비중 %	구분	연구자수	비중 %
USA	54	17.6	아시아/남미/ 아프리카	108	35.2
SPAIN	25	8.1			
ENGLAND	21	6.8			
AUSTRALIA	16	5.2			
CHINA MAINLAND	13	4.2			
IRAN	12	3.9	북미/유럽	199	64.8
FINLAND	9	2.9			
SWEDEN	9	2.9			
CANADA	8	2.6			
CZECH REPUBLIC	6	2.0	전체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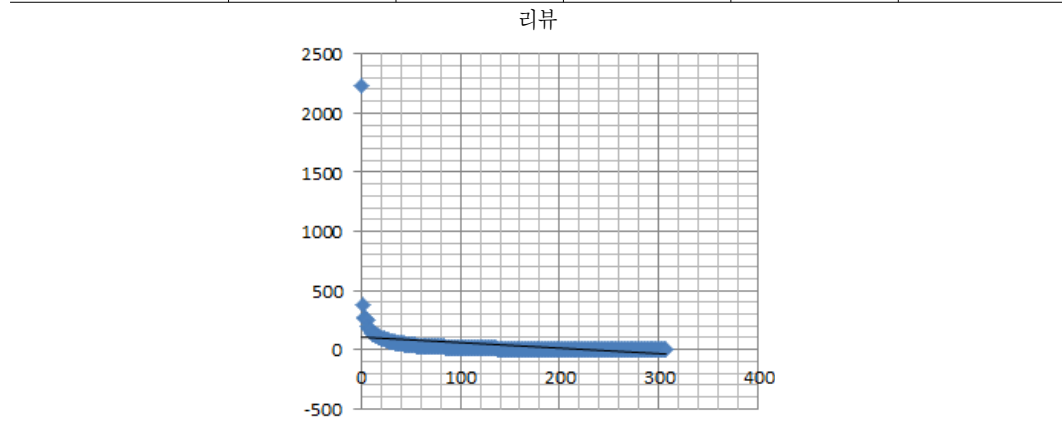
〈표 3〉 분석 대상 리뷰어의 학술적 성과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WOS 논문량	307	1	954	36.00	85.994
피인용 횟수	307	0	48,379	826.08	3865.408
h-Index	307	0	106	8.33	10.253



〈표 4〉 분석 대상 리뷰어의 리뷰 및 편집 기록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리뷰	307	1	2,231	32.23	134.239
편집 기록	307	0	147	1.76	11.273
편집위원회 위촉	197	0	12	.84	1.692



로 확인되었다. 이들을 제외하면 앞에서 가장 많은 논문 실적을 나타낸 Bornmann, Lutz와 Thelwall, Mike가 각각 248, 197건으로 가장 많

은 리뷰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Thelwall, Mike는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Quantitative Science Studies 등을 주로 리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Bornmann, Lutz는 Scientometrics, Journal of Informetrics, Quantitative Science Studies등이 주로 리뷰하는 학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네 번째, 이들이 심사한 리뷰 보고서의 길이에 국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표 5>와 같이 확인해 보았다. 리뷰어를 북미·유럽과 아시아 및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북미·유럽의 리뷰어가 평균 408단어, 아시아 및 기타 국가의 리뷰어가 304단어의 리뷰 보고서를 작성해 약 100 단어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Mann-Whitney 분석 결과에서도 북미와 유럽 리뷰어가 유의하게 더 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Clarivate(2018)의 보고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의 리뷰어는 영어 사용자의 비율이 높은 유럽의 심사자보다 더 짧은 리뷰를 작성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비영어권 학자들

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언어의 불편함이 국제 학술지 리뷰나 편집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겠다(Cho, 2024).

4.2 리뷰어의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활동 간 관련성

그 다음 분석 대상 리뷰어의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활동 간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표 6>과 같이 연구자의 학술성(논문량, 피인용량, h-Index)을 하나의 요인점수로 축약하였고, 학술지발간참여를 의미하는 3개의 지표(리뷰량, 편집 기록량, 편집위원회 위촉 횟수) 역시 하나의 변수로 축약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KMO(Kaiser-Meyer-Olkin)는 전체 상관관계 행렬이 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0.6 이상일 경우

<표 5> 국가 구분에 따른 리뷰 보고서 길이 차이

국가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Mann-Whitney U test		
				평균순위	U	유의확률
아시아/남미/아프리카	304.33	108	249.735	136.58	8865.000	.013
북미/유럽	408.86	198	345.886	162.73		

<표 6>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활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WOS 논문량	.929	리뷰	.798
피인용 횟수	.922	편집기록	.776
h-Index	.952	편집위원회	.796
Eigen-Value	87.26	Eigen-Value	62.41
설명된 분산(%)	87.26	설명된 분산(%)	62.41
Kaiser-Meyer-Olkin	.749	Kaiser-Meyer-Olkin	.672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733.647, 자유도 3 유의확률 .00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 101.006, 자유도 3 유의확률 .00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본 분석에서는 0.749(학술성과), 0.672(학술지발간참여)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관관계 값들의 전반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Bartlett 테스트 결과에서도 역시 유의한 ($p < 0.05$)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든 변수가 높은 설명력과 적재량을 나타냈으며 각각 하나의 성분으로 요약되었다. 즉 논문량과 피인용량, h-Index가 “학술성과”라는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축약될 수 있고 리뷰량, 편집 기록량, 편집위원회 위촉 횟수도 “학술지발간참여”라는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축약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축약된 결과는 요인점수로 변환되었고 이를 사용해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학술성과가 높으면 리뷰, 편집과 같은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이 $r = 0.38(p < 0.01)$ 의 약한 관련성만이 나타났다. 게이트키퍼는 투고 논문의 주제나 품질의 적합성을 평가해 이른바 걸러내는 문지로, 학술 커뮤니티에서 과학적 발견을 정당화하고 미래의 학문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난 약한 관련성은 논문 출판 등의 학술활동과 게이트키퍼 활동이 다소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참고로 분석 대상

샘플 중 WOS 논문량과 리뷰량에서 아웃라이어로 판단되는 4명의 비 문헌정보학 분야 리뷰어가 주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을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에서도 $r = 0.37(p < 0.01)$ 의 관련성이 나타나, 아웃라이어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후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한편 앞에서 산출한 요인점수를 활용하여 리뷰어의 학술성과와 학술지발간참여에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보았다. Mann-Whitney 비모수 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8>과 같이 “학술성과”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술지발간참여”에 있어서는 북미와 유럽의 리뷰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01$). 즉 논문량과 같은 학술성과에 있어서는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나 게이트키퍼 참여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LS 분야의 국제 학술논문 출판은 중국, 한국, 이란, 대만, 파키스탄과 같은 아시아권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와 같은 아프리카권 국가의 기여가 크게 나타나지만(조재인, 2024), 그에 비해 이들 국가의 연구자가 국제 학술지에 리뷰어와 편집위원으로 위촉되는 정도는 저조하다(Cho, 2024). 물론 많은 학술지

<표 7> 학술성과와 학술지발간참여 활동간 관련성

구분		학술지발간참여	학술성과
Spearman의 rho	학술성과	상관계수	.380**
		유의확률 (양측)	.000
		N	197
	학술지발간참여	상관계수	1.000
		유의확률 (양측)	.
		N	197

〈표 8〉 지역 구분에 의한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차이에 대한 Mann-Whitney 분석 결과

구분	지역 구분	평균	N	표준편차	Mann-Whitney U test		
					평균순위	U	유의확률
학술성과	아시아/남미/아프리카	-.17	74	.31	96.45	4362.00	.63
	북미/유럽	.102	123	1.23	100.54		
학술지 발간참여	아시아/남미/아프리카	-.006	108	1.25	141.13	9356.50	.06
	북미/유럽	.00	199	.83	160.98		

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영국이 압도적이며(Akça & Şenyurt, 2023; Cabanac, 2012; Yip & Rashid, 2021), 아시아권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변방에 머무르고 있다. 이 통계를 통해서도 LIS 분야에서 국제 학술출판을 이끄는 게이트키퍼는 북미·유럽권에 더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학술성과와 학술지발간참여 간에 약한 관련성이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학술지발간참여에 있어서는 지역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이 검증되었다. 그렇다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리뷰어에게 있어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간의 관련성이 북미·유럽 지역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표 9〉와 같이 지역을 구분하여 양 지표 간의 관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는 $r = 0.376(p < 0.01)$ 이, 북미·유럽에서는 $r = 0.391(p < 0.01)$ 의 상관계수가 나

타나, 양자 모두 약한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전자의 경우에서 지표 간 관련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연구자는 북미·유럽권에 비해 국제 학술지에 높은 출판 실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게이트키퍼 활동이 저조할 수 있음을 다른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다.

4.3 학술지의 영향력과 관련성을 보이는 리뷰어의 특성

그다음으로 분석 대상 리뷰어들이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과 관련성이 나타나는 리뷰어의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먼저 리뷰어의 학술성과와 리뷰하는 학술지의 CiteScore, SJR 간에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표 10〉과 같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은 리뷰어의 논문의 양(CiteScore $r = 0.174 p < 0.01$, SJR $r = 0.182$

〈표 9〉 지역 구분에 의한 학술성과, 학술지발간참여 활동간 관련성

지역 구분	구분	상관계수	유의확률	N
아시아/남미/아프리카	학술성과	.376	.000	123
	학술지발간참여			
북미/유럽	학술성과	.391	.000	74
	학술지발간참여			

〈표 10〉 학술지의 영향력과 리뷰어의 학술성과 간 관련성

구분		CiteScore	SJR
WOS 논문 수	상관계수	.174**	.18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930	930
피인용 횟수	상관계수	.230**	.252**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930	930
h-Index	상관계수	.219**	.22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N	930	930

p<0.01) 보다는 피인용 횟수(CiteScore r=0.230 p<0.01, SJR r=0.252 p<0.01)나 h-Index (CiteScore r=0.219 p<0.01, SJR r=0.228 p<0.01)와 같은 영향력 지수와 약간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즉 WOS 논문량이 많은 연구자보다는 높은 피인용 지수를 쌓은 영향력 있는 연구자가 리뷰한 학술지가 좀 더 우수한 학술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참고로 〈표 11〉과 같이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과 리뷰량 등 기타 변수에 있어서도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목할 만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리뷰 경력을 변수로 설정한 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해, 신진연구자들은 낮은 순위 즉 영향력이 낮은 학술지를 리뷰할 수 있다고 밝힌 Lei(2022)의 연구 결과와는 다

〈표 11〉 리뷰어의 학술지 발간 참여 활동과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 간 관련성

구분		CiteScore	SJR
리뷰량	상관계수	.038	.040
	유의확률 (양측)	.246	.219
	N	930	930
편집기록량	상관계수	.010	.047
	유의확률 (양측)	.768	.154
	N	930	930
편집위원위촉 횟수	상관계수	.042	.059
	유의확률 (양측)	.284	.132
	N	653	652
리뷰 경력	상관계수	.032	.045
	유의확률 (양측)	.328	.170
	N	930	930
보고서길이	상관계수	.072*	.118**
	유의확률 (양측)	.028	.000
	N	926	926

르게 나타났다. 단지 보고서 길이만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으나 그 수치가 미미하여 고려할 요소로 해석되지는 않았다(CiteScore $r = 0.072$ $p < 0.05$, SJR $r = 0.118$ $p < 0.01$).

마지막으로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해 우수 학술지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어의 특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우수 학술지는 SJR 평균인 1을 중심으로 그 이상으로 분류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SJR이 1이 넘는 학술지와 넘지 않는 학술지를 바이너리 코딩하고 국가, 피인용량, 논문량, 리뷰량, 편집 기록량, 편집위원 위촉 횟수, 리뷰 보고서 길이, 리뷰 경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모형의 적절성은 검증되었으며 분류의 정확도는 67.3%로 나타났다. <표 12>를 통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수 학술지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어의 특성 중 유의한 요인은 WOS 논문 수($B = -0.014$, $p < 0.01$)와 h-Index($B = 0.140$, $p < 0.01$)로 나타났고 다른 요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두 개의 변수 중 h-Index는 승산비(Odds ratio)가 1.15(95% CI: 1.094-1.209)로 나타나, 이 지표가 높은 명망있는 학자일수록 영향력 높은 우수 학술지를 리뷰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다른 유의한 변수인 WOS 논문량의 승산비는 0.986(95% CI: 0.978-0.994)으로 부(-)의 영향이 나타나, 논문이 많을수록 우수 학술지를 리뷰할 가능성은 도리어 작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다작하는 연구자가 리뷰를 많이 할 수는 있으나(Cho, 2024) 그것이 꼭 우수한 학술지는 아닐 수 있으며, 우수한

<표 12> 우수 학술지 리뷰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어의 특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coeff	SE	Wald	p	Odds ratio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WOS 논문 수	-.014	.004	11.487	.001	.986	.978	.994
피인용 횟수	.000	.000	.154	.695	1.000	1.000	1.000
h-Index	.140	.026	30.058	.000	1.150	1.094	1.209
지역	.173	.181	.911	.340	1.189	.833	1.697
리뷰	.000	.001	.168	.682	1.000	.998	1.001
편집기록	-.004	.006	.374	.541	.996	.985	1.008
편집위원회 위촉	.087	.076	1.322	.250	1.091	.941	1.265
리뷰경력	-.012	.026	.222	.638	.988	.939	1.039
보고서길이	.000	.000	.487	.485	1.000	1.000	1.001
상수항	-1.571	.254	38.389	.000	.208		
Model Verification							
Summary				-2 Log likelihood = 794.324 Nagelkerke R ² = .108 예측률 = 67.3%			
Hosmer & Lemeshow Test result				X ² = 9.106 df = 8 p = .333			

학술지를 주로 리뷰하는 연구자는 h-Index가 높은 명망 있는 연구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Lei(2022)와 Ortega(2017)의 연구 결과에서도 리뷰어의 학문적 영향은 리뷰된 학술지의 품질과 약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알아본 LIS 분야에서도 그 관련성이 크진 않지만, 우수 학술지는 학술적으로 명망 있는 리뷰어에게 심사를 더 자주 의존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 학술지 리뷰어와 그들이 리뷰하는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발견과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학술성고가 높은 연구자는 국제 학술지 발간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지만 절대적 관련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따라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 리뷰나 학술지 편집 활동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연구자, 반대로 학술지 발간에는 활발히 참여하지만 학술성고는 높지 않은 연구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지 편집위원과 리뷰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수한 연구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편집위원의 학술적 생산성은 그 범위가 매우 크며(Weinrach et al., 2006), 학문적 성취나 우수성에 의해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Lowe & van Fleet, 2009). Ortega(2017)도 학술 논문의 저자로서의 생산성과 동료 심사 활동량은 관련성이 약해 양자는 다소간 독립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두 번째, 학술적 성과에 있어서는 북미·유럽과 기타 지역 연구자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리뷰, 편집 기록, 편집위원 위촉 정도에 있어서는 90% 신뢰 수준에서 지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북미·유럽 선진국의 리뷰어가 글로벌 학계의 게이트키퍼로서 학문적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학술 네트워크에서 변방에 위치하는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참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술지의 편집자는 리뷰어를 배정하고 리뷰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 판단을 하므로 학문적 영향력, 충분한 리뷰 경험, 판단의 공정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LIS 국제 학술지의 리뷰어와 편집위원은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구성되며(Akça & Şenyurt, 2023; Cabanac, 2012; Yip & Rashid, 2021) 아시아권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은 소외되어 있다.

세 번째, 리뷰된 학술지의 영향력은 리뷰어의 논문의 양보다는 피인용 횟수, h-Index와 같은 영향력 지수가 더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Seeber(2020)는 최상위 학술지는 경험이 풍부한 학자의 심사에 의존한다고 언급하였으며 Ortega(2017)도 리뷰어의 학문적 영향은 리뷰된 학술지의 품질과 약한 상관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해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학술지 발간 참여 실적과 리뷰한 학술지의 영향력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아, 리뷰를 많이 하고 편집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활발한 연구자라고 해도, 꼭 영향력이 높은 국

계 학술지를 리뷰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리뷰어의 다양한 특성 중 우수 학술지 리뷰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해 본 결과, h-Index만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이 지표가 높은 명망 있는 연구자일수록 영향력 높은 우수 학술지를 리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WOS 논문량은 부정(-)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작하는 연구자가 리뷰를 많이 할 수는 있으나(조재인, 2022), 그것이 꼭 우수한 학술지는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학술지를 주로 리뷰하는 연구자는 논문량이 많다고 보다 높은 누적 피인용으로 학술적 명망을 쌓은 연구자일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의 이론적 기여와 방법론적 타당성 강조하는 상위 학술지는 이러한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명망있는 연구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연구자는 넘치는 리뷰 요청 속에 하위 등급의 학술지는 거절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학술지의 영향력과 리뷰어의 학문적 영향력 간 적절한 일치가 리뷰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문적 영향력이 큰 저명한 학자들은 더 높은 순위의 학술지를 리뷰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리뷰어를 초대할 때 편집자는 그들의 역량과 수락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학술지의 영향력과 연구자의 학문적 영

향력 간의 적절한 일치는 리뷰 수락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i, 2022).

한편 본 연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LIS 분야 국제 학술지 발간에 참여하는 리뷰어들은 북미·유럽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비슷한 사람으로 구성된 리뷰어나 편집위원은 공통의 연구 패러다임과 철학, 주제, 방법론적 선호로 판단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북미와 유럽 중심의 리뷰어나 편집위원은 전 지구적 지식 탐구와 학술적 지평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이 세계 경제 및 연구에 있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이들을 포함시켜 지역적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Cho, 2024; Harzing & Metz, 2013).

본 연구는 3종의 LS 학술지에 투고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분석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학술지에 투고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은 샘플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 WOS Researcher Profile을 기반으로 한 리뷰어의 추출은 전체 커뮤니티를 대표할 수 없으며, 리뷰어의 변수는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수집 시점에 따라 리뷰어 별로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가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도 언급한다. 국내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종수는 많지 않으며 영향력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국제 학술지와는 달리 좁은 리뷰어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뷰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뷰어의 영향력과 학술지의 영향력간의 관련성이 큰 실용적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된 축적된 심사 이력에 대한 정보는 대규모 양적 분석을 가능하

게 해 다양한 계량적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활용한 다각도의 리뷰어 분석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촉진과 학술지 운영에 좀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학술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리뷰어의 특성과 리뷰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며, 리뷰의 익명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그 실적을 업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조재인 (2022). 국내 연구자의 국제 학술지 동료 심사 활동에 관한 연구: Publons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5-24. <http://doi.org/10.14699/kbiblia.2022.33.1.005>
- 조재인 (2024). 다양성 지수를 활용한 학술지 편집위원과 저자의 국적 다양성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2), 81-100. <http://doi.org/10.4275/KSLIS.2024.58.2.081>
- Abrizah, A., Noorhidawati, A., & Zainab, A. N. (2015). LIS journals categorization in the Journal Citation Report: a stated preference study. *Scientometrics*, 102(2), 1083-1099. <https://doi.org/10.1007/s11192-014-1492-3>
- Akça, S. & Şenyurt, Ö. (2023). Geographical representation of editorial boards: a review in the field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Scientometrics*, 128, 1409-1427. <https://doi.org/10.1007/s11192-022-04614-0>
- Breuning, M., Backstrom, J., Brannon, J., Gross, B., & Widmeier, M. (2015). Reviewer fatigue? why scholars decline to review their peers' work.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8(4), 595-600. <http://doi.org/10.1017/S1049096515000827>
- Cabanac, G. (2012). Shaping the landscape of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editorial boards: a scientometric study of 77 leading journal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3(5), 977-996. <https://doi.org/10.1002/asi.22609>
- Cho, J. (2024). The effect East Asian researcher's academic performance on international journal review and editing activities. *Scientometrics*, 129, 1825-1839. <https://doi.org/10.1007/s11192-023-04918-9>
- Clarivate (2018). It's not the size that matters. Available:

- <https://clarivate.com/blog/its-not-the-size-that-matters/>
- Gaston, T. (2018). Addressing the regional diversity of reviewers. Available: <https://www.wiley.com/network/researchers/being-a-peer-reviewer/addressing-the-regional-diversity-of-reviewers>
- Haak, L. (2015). F1000 and ORCID Partner to Launch Standard for Citing Peer Review Activities. Available: <https://info.orcid.org/f1000-and-orcid-partner-to-launch-standard-for-citing-peer-review-activities/>
- Harzing, A.W. & Metz, I. (2013). Practicing what we preach.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53, 169-187. <https://doi.org/10.1007/s11575-011-0124-x>
- Huang, M. H., Shaw, W. C., & Lin, C. S. (2019). One category, two communities: subfield differences in “Information Science and Library Science” in Journal Citation Reports. *Scientometrics*, 119(2), 1059-1079. <https://doi.org/10.1007/s11192-019-03074-3>
- IOP Publishing (2020). Peer review motivations report 2020. Available: <https://iopublishing.org/peer-review-survey-insights/>
- Jamali, HR, Nicholas, D., Watkinson, A., Abrizah, A., Rodríguez-Bravo, B., Boukacem-Zeghmouri, C., Xu, J., Polezhaeva, T., Herman, E., & Świgon, M. (2020). Early career researchers and their authorship and peer review beliefs and practices: an international study. *Learned Publishing*, 33(2), 142-152. <https://doi.org/10.1002/leap.1283>
- Lei, Y. (2022). Is a journal’s ranking related to the reviewer’s academic impact? (An empirical study based on Publons). *Learned Publishing*, 35(2), 149-162. <https://doi.org/10.1002/leap.1431>
- Lowe, D. J. & van Fleet, D. D. (2009). Scholarly achievement and accounting journal editorial board membership.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27(4), 197-209. <https://doi.org/10.1016/j.jaccedu.2010.07.004>
- Ohly, S. & Schneiderberg, C. (2021). German professors’ motivation to act as peer reviewers in accreditation and evaluation procedures. *Minerva*, 59, 217-236. <https://doi.org/10.1007/s11024-020-09430-5>
- Ortega, J. L. (2017). Are peer-review activities related to reviewer bibliometric performance? a scientometric analysis of Publons. *Scientometrics*, 112, 947-962. <https://doi.org/10.1007/s11192-017-2399-6>
- Pomponi, F., D’Amico, B., & Rye, T. (2019). Who is (likely) peer-reviewing your papers? a partial insight into the world’s top reviewers. *Publications*, 7(1), 15. <https://doi.org/10.3390/publications7010015>

- Publons (2018). Publons global state of peer review. Available:
<https://publons.com/static/Publons-Global-State-Of-Peer-Review-2018.pdf>
- Rodríguez-Bravo, B., Nicholas, D., Herman, E., Boukacem-Zeghmouri, C., Watkinson, A., Xu, J., Abrizah, A., & Świgon, M. (2017). Peer review: the experience and views of early career researchers. *Learned publishing*, 30(4), 269-277. <https://doi:10.1002/leap.1111>
- Seeber, M. (2020). How do journals of different rank instruct peer reviewers? reviewer guidelines in the field of management. *Scientometrics*, 122, 1387-1405.
<https://doi.org/10.1007/s11192-019-03343-1>
- Severin, A., Strinzel, M., Egger, M., Domingo, M., & Barros, T. (2021). Characteristics of scholars who review for predatory and legitimate journals: linkage study of Cabells Scholarly Analytics and Publons data. *BMJ Open*, 11:e050270.
<http://doi.org/10.1136/bmjopen-2021-050270>
- Tite, L. & Schroter, S. (2007). Why do peer reviewers decline to review? a surve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1(1), 9.
<https://doi.org/10.1136/jech.2006.049817>
- Warne, V. (2016). Rewarding reviewers - Sense or sensibility? a wiley study explained. *Learned Publishing*, 29(1), 41-50. <https://doi.org/10.1002/leap.1002>
- Weinrach, S. G., Thomas, K. R., Pruettt, S. R., & Chan, F. (2006). Scholarly productivity of editorial board members of three American counseling and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s.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8(3), 303-315.
<http://doi.org/10.1007/s10447-005-9009-7>
- Yip, S. W. & Rashid, M. A. (2021). Editorial diversity in medical education journals. *The Clinical Teacher*, 18, 523-528. <https://doi.org/10.1111/tct.13386>
- Zhang, L., Shang, Y., Huang, Y., & Sivertsen, G. (2022). Gender differences among active reviewers: an investigation based on publons. *Scientometrics*, 127, 145-179.
<https://doi.org/10.1007/s11192-021-04209-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J. (2022). A study on the peer review activity of domestic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journals: focused on publ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1), 5-2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1.005>

Cho, J. (2024). An analysis of nationality diversity by journal editors and authors using diversity index: focusing on international journa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8(2), 81-100.
<http://doi.org/10.4275/KSLIS.2024.58.2.081>

